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유아임용

최종 합격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 | | | | | |
|------|---------|-------|------|------|----|
| 수강생명 | 김○○ 수강생 | | 수강방식 | 직강 | |
| 응시지역 | 서울 | 병행 여부 | 올인 | 공부경력 | 삼수 |

| | |
|-----|---------------------|
| 좌우명 |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 |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올해 서울 지역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초수, 재수 시절과 올해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수 때는 재학생 신분으로 실습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당시 실습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커서 사후실습이 끝났음에도 기간을 연장하고 운동회 스태프로 지원하는 등 임용 공부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재수 때는 부속 유치원에서 부교사로 일하느라 8, 9, 10월 3개월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국 두 번의 시험 모두 이론 강의조차 완강하지 못한 상태였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가 준 요약본에 기출 표시를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 외웠습니다.

0. 초수, 재수 불합격 요인

❶ 불합격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선별적 암기'였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적은 부분에서 나오니 기출 위주로 공부하고 운이 좋으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공부 내용을 선별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1년을 올인하여 제대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부의 핵심은 "선별하지 말자, 요행을 바라지 말자,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내 것으로 만들자"였습니다.

② **두 번째 실패 요인은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학습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저 자신과 타협**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 교수님께서 지도해주시는 방법론을 철저히 체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저에게 박수민 강사님의 커리큘럼은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계획은 물론, 지식을 체화하는 구체적인 공부법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점이 합격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막연한 요행을 바라기보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각오로 강사님을 믿고 성공법을 택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③ 또한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으로, 수험 기간 중 가장 힘든 것은 공부량 그 자체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걸까?"라는 끊임없는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감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주범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믿고 일단 직접 부딪혀 보세요. 이후 실천 과정에서 막히거나 어렵다면 주저 말고 질문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직강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모르는 것이나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너무 사소한가?"라고 느꼈던 질문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소한 고민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내 공부 방법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시험 당일까지 흔들리지 않고 쪽쪽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1. 1~10월 시기별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임정 강의 활용 방법)

◆◆◆◆ [1~6월] 이론 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및 인출 ◆◆◆◆

이 시기는 개론과 각론의 이론 강의를 들으며 암기와 인출에 공을 들이는 시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로 설명하는 구술 인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 수업 시간의 초집중

강의 내용을 잘 인출하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직강 앞자리를 사수하며 교수의 모든 말씀을 기본서에 받아적었습니다. **눈과 귀, 손의 감각을 모두 열고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속기사처럼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교재 곳곳에 강의 중간에 해주신 교수의 동기부여 멘트들도 적어두었는데 이는 수험 생활 내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 암기 및 인출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목차에 따라 박수민 교수님께 빙의하여 스스로에게 배운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칠판에 키워드를 적으며 선생님 놀이를 하듯 재미있게 접근했습니다. 누군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차 전문 용어를 섞어 책의 텍스트 그대로를 복사하듯 내뱉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이 익숙해지자 나중에는 텍스트에 담긴 용어 그대로 처음부터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이해하는 동시에 책에 있는 내용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니기에, 완벽해질 때까지 기본서를 암기하고 인출하기를 거듭했습니다.

- 마감 기한이 있는 몰입

저는 토요일에 직장에서 배운 이번 주 내용은 월요일까지 끝낸다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이틀 만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 강의가 끝나고도 학원에 남아서 학원 문이 닫는 9시까지 매번 공부하고 갔습니다. 공부 마감 기한을 만들어두니 토요일에 공부하고 가는 것도 힘든 것이 아니라 나중의 수고를 덜기 위한 당연한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은 당일에 외우고 인출한 것은 내용이 더욱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내 것으로 만들고 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감기한을 정하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이 하루하루가 정말 뻑뻑하고 바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출문제를 풀고 목요일에는 지난주에 배운 각론을 복습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이번 주 공부 내용에 대한 각론 총 복습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총 4시간 동안 페이스톡으로 진행했습니다. 30분씩 번갈아 가면서 이번 주 공부한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잡은 목차를 토대로 범주화해 나가며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인출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말스터디 외에도 이번 주 내용을 총정리하는 스터디를 하고 나면 이번 주 공부한 내용은 완전히 복습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에 이론 강의 시기 계획표를 첨부해놓겠습니다.

계획표는 박수민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계획표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5~6월 주간공부계획>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 5:00~6:00 [고시문/ 안전법] | 총 | 사회관계 | 신체운동 | 의사소통 | 예술경험 | 자연탐구 |
| | 생·교·폭 | 약·재·직 | 응·교육방법 | 성·아 | 실·감 | 재·교 |
| 6:00~7:00 (1시간) | | 각론 study | 이동, 고시문, 해이실 | 각론 study | 각론 study | 각론 study |
| 7:00~8:00 (1시간) | | yoga | | yoga | 고시문 | yoga |
| 8:00~9:00 (1시간) | [해] | p.24-34 | p.8-21 | p.44-45 | [이] p.10-25 | p.220-233 |
| | [실] | p.10-22 | p.24-31 | p.60-66 | p.32-43 | p.44-59 |
| 9:00~10:00 (1시간) | 논술 | 논술 | 이번 주 각론 공부 | 논술 | 논술 | 논술 |
| 10:00~11:00 (1시간) | 단계 복습 | 단계 복습 | | 단계 복습 | 단계 복습 | 단계 복습 |
| 11:00~1:00 (2시간) | 개론 복습 | 개론 복습 | | 개론 복습 | 개론 복습 | 개론 복습 |
| 1:00~1:30 (30분) | 개론 인출 | 개론 인출 | 논술 강의 수강 | 개론 인출 | 개론 인출 | 개론 인출 |
| 1:30~2:00 (30분) | [유아교육법] p.1-12 | [유아교육법] p.13-24 | | [유아교육법] p.25-37 | [교사론] p.1-14 | [교육기본법] p.1-10 |
| 2:00~6:00 (4시간) | 이번 주 각론 공부 | 이번 주 각론 공부 | | 기출풀이, 자가 시험 및 보충 | 지난 각론 복습 | 이번 주 각론 총 복습 study |
| 6:00~7:00 | 이동/저녁 | 이동/저녁 | 논술 복습 (3시간) | 이동/저녁 | 이동/저녁 | 이동/저녁 |
| 7:00~9:00 (2시간) | 지난 각론 복습 | 지난 각론 복습(1시간) | | 이번 주 각론 복습 | 지난 각론 복습(1시간) | 다음 주 예습 |
| 9:00~10:00 (1시간) | 건강 개요 정신·영양 응급) 1~2 | 각론 study | 안전 개요 실내·외 안전 교통안전 응급) 6~9 | 각론 study | 약물/성폭력 실종·유괴 응급) 14~17 | 재난 안전 응급) 18~19 |
| 10:00~11:00 (1시간) | 취침 | 감염병 대응 응급) 3~5 | 아동학대 전자 미디어 응급) 10~13 | 취침 | 취침 | 취침 |

<5~6월 주간공부 계획표>

◆◆◆◆ [4~6월] 논술 강의 - 직장에서 교수님 피드백 받기 ◆◆◆◆

저는 논술 기초, 심화반 모두 직강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강생들이 논술을 작성하고 있을 때 돌아다니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봐주신다는 생각에 더 공들여서 잘 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쓴 답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어서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논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가 아는 것을 풍부하게 적을 수 있게 되어 논술에서 18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주시는 문제도 2차 공부에도 도움이 되며 매우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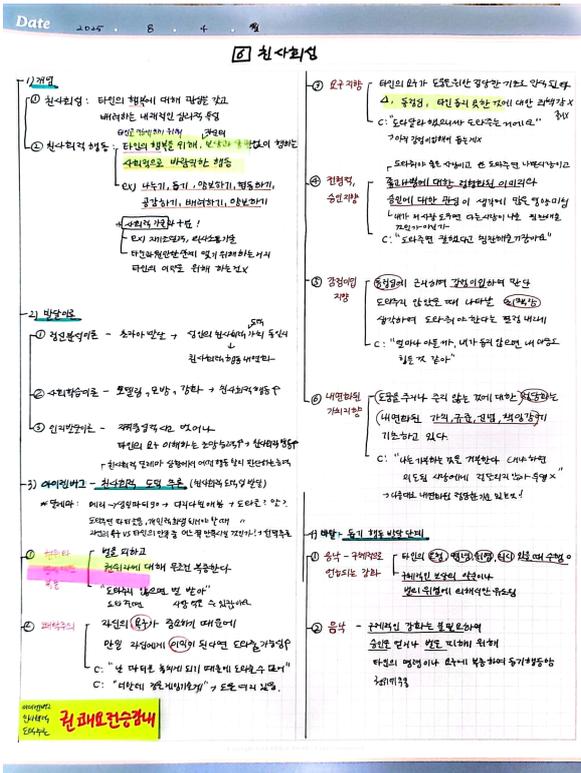
◆◆◆◆ [7~8월] 문제풀이 시기 : 요약본 만들기 ◆◆◆◆

저는 이 시기에 요약본이 있으면 남은 기간 인출하기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야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수기로 전 범위를 a4용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방법은 저한테 매우 잘 맞고 효과가 있었지만 공부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매우 비효율적인 효과가 없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효과가 있던 이유는

일단 저는 6월까지 말스터디를 통해서 끊임없이 목차를 잡으며 구조화를 해두어서 노트 정리할 목차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초수, 재수 때 기출문제만큼은 열심히 공부해서 기출에 무엇이 몇 번정도 나왔고 어떤 것이 중요한 개념인지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요약본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기와 인출을 1월부터 끊임없이 무한 반복했기 때문에 백지쓰기와 같은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것을 떠올려서 쓰고 쓰기 전에 정확한지 기본서와 박수민 교수님께서 주신 요약본을 확인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암기를 하고 백지쓰기 하듯이 노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달 안에 만들기에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이론반 때부터 가능하다면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책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말스터디로 다져진 구조화를 바탕으로 암기가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며 백지 쓰기하듯 써 내려간 것입니다. 책을 베끼는 수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박수민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요약본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정리한 부분은 모두 맞히는데 정리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문제를 틀리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기로 정리를 해나갔고 정리한 이후에는 거의 제가 만든 요약본으로만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범주대로 내용이 한 눈에 정리된다는 점이 매우 좋았고 제가 작성한 노트만큼은 완벽히 제 머리에 들어와서 확실히 공부 영역을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8월 문제풀이반 계획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 6:00-7:00 | 고시문/해이실 | 운동(고시문) | 운동(고시문) | 고시문/해이실 | 운동(고시문) |
| 7:00-8:00 | yoga | 인출 복습 | 인출 복습 | yoga | 인출 복습 |
| 8:00-9:00 | 한 주 계획 | 인출 복습 | 고시문/해이실 | 고시문/해이실 | 인출 복습 |
| 9:00-10:00 | 논술 | 논술 | 논술 | 논술 | 논술 |
| 10:00-11:00 | 성당 | 지난 주 복습 | 지난 주 복습 | 지난 주 복습 | 지난 주 복습 |
| 11:00-12:00 | | 지지난 주 복습 | 지지난 주 복습 | 지지난 주 복습 | 문제풀이 |
| 12:00-1:00 | 점심 | | | | |
| 1:00-2:00 | 시험영역 공부 기술문제 | 시험영역 공부 기술문제 | 시험영역 공부 기술문제 | 시험영역 공부 기술문제 | 시험 영역 총 복습 +문제풀이 |
| 2:00-3:00 | | | | | |
| 3:00-4:00 | | | | | 지난 주 시험 영역 study |
| 4:00-5:00 | | | | | |
| 5:00-6:00 | 시험 영역 셀프 스피치 테스트 | 지지난주 보충 | | | |
| 6:00-7:00 | | | | | |
| 7:00-8:00 | | | | | |
| 8:00-9:00 | 휴식 | 다음 주 영역 공부 | 파란 암기 | 파란 암기 | 다음 주 영역 공부 |
| 9:00-10:00 | | 다음 주 영역 공부 | 인출 study | 인출 study | 다음 주 영역 공부 |
| 10:00-11:00 | 계획+복습인출 | 계획+복습인출 | 계획+복습인출 | 계획+복습인출 | 계획+복습인출 |

<직접 만든 요약본>

<7~8월 주간공부 계획표>

◆◆◆◆ [9~10월] 모의고사 시기 ◆◆◆◆

모의고사 문제는 학원에서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인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만든 요약본의 목차만 펴두고, 내용은 카드로 가립니다. 그 상태에서 목차만 보고 해당 내용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인출하는 연습을 무한히 반복했습니다. 인출이 잘 되지 않고 자꾸 틀리는 부분은 형광색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저는 여러 과목을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좋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부 영역을 잘게 쪼갰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주신 인출표를 활용해 학습의 범위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실수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는데 틀리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실수로 틀린 문항은 따로 모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했으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행동 강령을 함께 적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이 실수 노트를 보고 상기하여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 꼭 만들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Tip -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 ★

① 카카오톡 실시간 공부 계획 인증 스터디

7월까지 대학 동기랑 카카오톡에 실시간 공부 인증하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논술 공부할게요"라고 남긴 후 10시 30분에 논술 작성하고 피드백한 사진을 찍어 인증합니다. 약속한 시간 안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다 보니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 습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② 캠퍼스터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5명의 동기들과 네이버 웨일 앱으로 캠퍼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공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캠퍼를 켜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③ 기상 인출 스터디

기상 인출 스터디는 시험 직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7월까지의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8월부터 시험 전까지는 30분간 진행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요약본을 기준으로 분량을 나누어 인출했습니다. 이후에는 기본서 위주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인출했는데 기본서 위주가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스터디는 기상하자마자 공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며, 다음 공부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 스터디였습니다.

④ 저녁 인출 말스터디

동기와 페이스톡으로 주 2회 1시간 동안 15분씩 번갈아 가며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하나도 보지 않고 얼굴을 보고 인출해야 하기에 더욱 긴장감이 들었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도 잘하기 위해 강의하듯이 설명할 수 있도록 외우려 노력했습니다. 지식을 나열하기보다 큰 목차-중목차-소목차 순으로 구조화하며 설명했습니다. 박수민 교수님이 말로 설명해 주셨던 지식들도 최대한 모두 인출하려 했고, 이해를 기반으로 하되 책의 텍스트 그대로 내뱉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터디를 하다 보니 같은 내용을 두 번 설명하게 되어 지식이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⑤ 건강 안전, 법 스터디

5일 동안 분량을 나누어 문제 내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건강 안전 1문제, 법규 2~3문제, 응급처치 1문제를 만들어 밴드에 올리면 다른 스터디원들이 댓글에 답을 다는 방식이었습니다. 혼자 하면 잘 안 하게 되는 영역이라 추천합니다. 꾸준히 쌓이는 과정 속에서 반복 출제되는 부분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⑥ 토요일 직강 후 인출 스터디

직강 수업이 끝나고 간단한 스터디를 꾸려서 오늘 배운 내용을 파트를 나누어서 암기 및 인출해보고 갔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시간을 30분으로 두고 오늘 배운 것이 사회관계 영역의 애착이론, 정서발달, 자아개념, 자기통제능력 등이라면 한 파트씩 맡아서 30분동안 오늘 배운 내용을 최대한 암기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생각나는 내용을 전부 말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 주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에 어떻게든 정보를 넣으려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만 한다면 많은 양의 정보가 암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 2차 준비 방법

◆◆◆◆ [1차 합격자 발표 전] ◆◆◆◆

발표 전에는 사례운영반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수업 실연을 연습할 때는 제 말투조차 어색하게 느껴져 힘들었지만, 대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점차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수강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업 유형별 시나리오를 하나씩 외우고 시연해보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때 공부를 많이 해두지 않아서 1차 합격 후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 [1차 합격자 발표 후] ◆◆◆◆

발표 직후 온라인 스터디를 구해 주 3회씩 진행하며 서울 기출문제를 최신순으로 풀었습니다. 영역별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 실연 연습

수업 유형별 '만능틀'을 만들어 암기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씩 마스터하는 방식으로 개인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2) 면접 연습

처음에는 말문이 트이지 않아 합격생 선배님의 만능 답안을 먼저 암기했습니다. 이후 즉답형은 답안 확인 없이 10문제 정도를 연속적으로 실제 시험처럼 '5분 제한'을 두고, 어떤 말이라도 내뱉어 무조건 시간 안에 답을 완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는 말문을 트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놀이실행자료도 틈틈히 다시 읽으며 암기하였는데, 이는 구상형 문제의 답안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 과정안 연습

과정안은 서울 최신 6개년 기출 답안과 만능틀을 암기하며 대비하였습니다.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사례운영반 수강생 대상 박수민 교수님 피드백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수님 앞에서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두고 진행했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부족한 점과 강점을 교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짚어주는 피드백을 통해 큰 도움을 얻었으며, 남은 시간 공부방향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막연했던 불안감이 줄어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 실연과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5) 시험 당일 및 마인드 컨트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생각했습니다. 시험 당일, 정신줄을 꼭 붙잡고 최대한 집중하여 시간 내에 정성스럽게 답하자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2차 준비 기간은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은 분명 내 안에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일에 집중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고 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잠은 6~7시간은 꼭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줄이면 집중력과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 핸드폰을 잡고 있으면 잘 시간이 줄어들기에 핸드폰을 하지 않고, 씻는 시간도 아까워서 줄이며 신속하게 잠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운동은 필라테스나 요가를 했고 시험이 다가올 땐 달리기를 30분 정도 하는 등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 **asmr 활용:**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는 것은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가 지루해질 때는 포근한 분위기의 asmr을 틀어놓고 공부하니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안정된 루틴:**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항상 고정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도 12시로 고정하고, 이때 유튜브의 동기부여 동영상을 들으며 밥을 먹은 뒤 1시까지 산책을 했습니다. 이는 공부 의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큰 틀이 에너지 소모 없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나에게 맞는 공부 장소:** 집보다는 공공도서관 열람실을 다녔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용하던 곳이라 애착을 가지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공부 환경에 변화를 주어 다른 도서관에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부 자리에서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는 원칙도 지켰습니다. 앉자마자 집중하는 것을 습관화하여 '여기는 공부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 **달리기:**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밖으로 나가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하여 기분을 전환하고 들어왔습니다.

합격 수기를 마치며..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눈앞의 과제에 충실했던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지만 가장 즐겁고 긍정적으로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1년이 아니라 즐겁고 뿌듯한 1년을 보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직생활에 임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럽게 버티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민 교수님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신다면,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모여 반드시 합격이라는 행복에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항상 참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주신 박수민 교수님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이끌어주신 박수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